

보도자료

2012년 2월 7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장 오승곤 (750-2130)
융합정책과 장병용 주무관 (750-2136) jang@kcc.go.kr**“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방송서비스 본격화”****-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정보를 TV에서 바로 검색 -**

방송을 보면서 줄거리, 출연자, 촬영장소 등 부가정보를 스마트폰과 TV에서 동시에 볼 수 있고,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자 참여도 가능한 서비스가 본격화 된다.

이 서비스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SBS와 LG전자, 에어코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, 스마트TV와 디지털TV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.

시청자는 실시간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줄거리, 출연자, 촬영장소 등의 평소 궁금했던 방송정보와 관련 뉴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, 방송과 연계된 다양한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.

또한,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의견을 TV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검색할 수 있다.



※ DTV와 스마트TV 화면에 알림표시가 나타나면, 시청자는 리모콘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(스마트폰, 태블릿PC는 'SBS NOW'앱을 다운받아 서비스를 이용)

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,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방송 시청의 즐거움이 한층 더 커지고 다양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국민의 방송 시청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발굴·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